

근대 학교 풍경따라 ‘광주 교육 읽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 출간

1800년대 학교 형성 과정 등 담아

광주 교육의 출발 다각도서 조망

광주의 최초 근대학교는 지금의 서석초인 전남 관찰부공립소학교(1896년)였다. 1896년 8월 6일 칙령 제36호 지방제도, 관제를 개정해 전라남도 관찰부가 나주에서 광주로 옮기게 되면서 공립소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1896년은 광주 근대교육이 시작된 의미 있는 해다.

1890년대 우리나라 교육을 매개로 국가의 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과거제 폐지와 맞물려 새로운 세계에 걸맞은 인재 양성이 필요했다. 당시는 서구 근대 문물을 빠른 속도로 조선사회에 유입되는 시기였다. 새로운 학교 교육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소학교와 사범학교 설립이 추진됐고, 1895년 7월 22일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이 발표됐다.

근대 광주 학교의 형성과 모습을 담은 책이 최근 발간돼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이 펴낸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져 온 광주 교육의 출발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책이 발간되기까지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류영국 소장, 임선희 책임연구원(광주교대 사회교육과), 조상현 연구원(전남대 사학과) 등이 참여했다.

1906년 통감부에 의해 개정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공립광주보통학교가 새로 들어섰다. 자연스레 광주소학교를 흡수했는데 이름이 개명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수업 년한은 4년이었고, 이 교육법에 따라 기준의 소학교는 역사속에서 지웠다.(한때 서석초 역사가 1906년이라고 알려진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책은 크게 ‘학교의 풍경’, ‘학교의 일상’을 주제로 구성돼 있다. 전자가 학교에서의 수업, 건물에 얹힌 이야기, 생활사 등을 다루고 있다면 후자는 시험, 규율화된 일상, 축제와 규율 등을 포함한다.

광주 중학교에서 첫 개교는 1908년 사립승일학교, 사립수피아여학교였다. 광주농업학교 전신인 도립광주농업학교는 1909년, 공립송정보통학교는 1919년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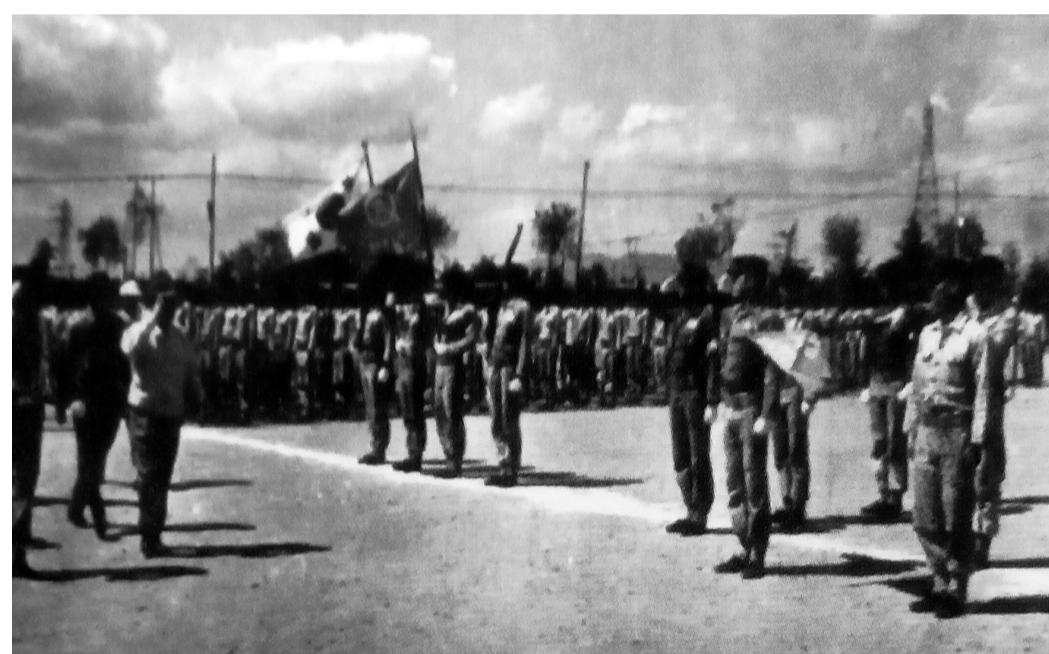
학교 건물은 건축 양식, 시설 외에도 교육 제도 변화를 보여주는 생활사다. 학교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시간이 쌓인 ‘기억의 그릇’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근대식 학교가 광주에 나타난 것은 19세기 말엽이다. 오늘과 같은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전통 건물을 빌려 ‘수업이 가능한 장소’로 단장하는 것이었다. 1896년 전남 관찰부가 광주향교의 사마재 건물을 빌려 공립소학교를 개교한 것이 그와 같은 사례다.

‘사람이 모여 앉아 글을 읽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최근 광주 학교의 형성 과정을 담은 책 ‘근대 광주 학교 이야기’를 펴냈다. 수청초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구조. <광주시 시청각 자료실>



1974년 전남고 교련실기대회 모습. <광주 교육시설 100년>

장소’가 당시의 모습이었다. 근대 교육이 새롭게 시작됐지만 내부는 전통적 시간 감각과 생활 방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학교의 모습이 바뀐 것은 양립동에 선교사들이 사립학교를 세우면서였다. 항교나 판야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대신 서양식 건물을 세웠는데 붉은 벽돌, 박공지붕, 대칭적 정면 등은 당시로서는 낯선 외관이었다.

초기 공립학교는 3년제였고 관찰사가 교장을 겸직했다. 교원们를 지위는 지방 행정 관료 체계에 종속되었으며 초기에는 수신을 비롯해 독서, 산술 등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시험 이었다. 특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은 가장 먼저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다. 1920년대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는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모집 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았던 때문이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아해들에게 입학 시험을 봐인 사실은 비단 경성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거기 그리한 모양임으로”라는 동아일보(1920년 4월 11일) 기사가 이를 방증한다.

책은 중등학교 입학난이 해마다 심해지는 내용도 다루고 있다. 중등학교 입학 지원자가 급증해 1937년 광주고보의 경우 1대 605였다고 한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부제 신설을 주장하는 신문 논설이 생길 정도였다.

임 연구원은 “근대 교육의 시작부터 학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며 광주의 과거를 살펴보고 싶었다. 쓰다보니 지금의 이야기보다는 과거의 것에 집중하였다”며 “지금의 이야기는 이후 세대의 뜻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채만식 ‘탁류’ 초판본 국립한글박물관에

1800년 망월사 ‘진언집’ 포함 172점 기증 받아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해 채만식(1902~1950)의 소설 ‘탁류’(濁流) 초판본을 포함해 총 172점을 기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탁류’는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일간지에 연재한 소설이다.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 일대를 배경으로 당대 타락한 세태와 몰락해 가는 계층의 모습을 담은 대표작으로, 1939년 박문서관에서 출간됐다.

이번에 확보한 초판본은 판권지 면에 만식(萬植)이라는 도장이 남아 있고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다.

이 밖에 1800년 망월사에서 간행된 ‘진언집’(眞言集), 김진평(1949~1998)의 글꼴 표현 작품, 근대 시기 국어운동을 보여주는 한글 배지 등도 박물관에 기증됐다.

박물관은 올해 전국 곳곳에 있는 한글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2014년 개관 아래 박물관이 기증받은 문화유산은 국가등록문화유산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를 포함해 3만여 점에 이른다.



‘탁류’ 초판본. <국립한글박물관 제공>

박물관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가갸날 100주년,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맞아 올해를 ‘한글문화유산 기증의 해’로 선언하고 기증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증을 홍보하는 만화를 제작하고 ‘기증자의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화음으로 채우는 일상

광주 북구, 다음 달 5일까지 구립·시니어 합창단원 모집

아름다운 화음으로 지역의 일상을 채워갈 새로운 단원을 찾는다. 광주 북구가 구립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에 참여할 신규 단원 모집에 나섰다.

북구 구립합창단은 지역 문화행사와 정기연주회, 봉사 공연 등을 통해 주민들과 꾸준히 만나온 생활문화 합창단이다. 현재 일반 성인으로 구성된 ‘북구합창단’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시니어합창단’ 두 팀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선발은 서류 심사와 실기, 면접을 거쳐 진행된다. 북구합창단은 20~64세 여성, 시니어합창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접수일 기준 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 가운데 주 2회 정기 연습과 공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다. 응모원서와 관련 서류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실기 심사는 2월 10일 오후 2시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지원자는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해 노래한 뒤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서 확인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구립합창단은 주민들의 일상에 음악으로 힘을 보태는 소중한 단체”라며 “노래로 지역과 함께하고 싶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예술의전당 문화 알림이 도전하세요

글·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다음 달 6일까지 4기 시민기자단 모집

공연장을 오가며 기록하고, 무대 뒤 이야기를 시민기자단이 꾸려진다. 광주예술의전당이 ‘2026 시민기자단 4기’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글·사진·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성인이다. 선발 분야는 글·시작과 영상 두 분야로, 모두 15명 이내를 뽑는다.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전당의 공연과 공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기록하게 된다며 “문화 현장을 직접 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원자는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2월 12일 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전당 모성일 흥보팀장은 “시민기자단은 전당의 공연과 공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기록하게 된다”며 “문화 현장을 직접 전하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명칭	합계 (㎢)	유산지역 (㎢)	인증구역 (㎢)
총면적 (㎢)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성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의 약 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 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자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펄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펄갯벌 위의 수체화

새들의 휴식처인 사취와 암반서식처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암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층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드는 특이ティ적체

모래-자갈 선향체, 세상에 알리지 않은 아름다움

계절별로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흰갯벌 속의 모래갯벌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현장!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연에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철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평원에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업무개

염생식물의 역할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고구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

생태 탐험

</